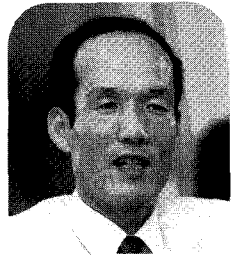




# “협동조합개혁, 한농연이 원하는 만큼만”



농업정책연구소장  
이헌목(李憲穆)

지난 8월4일에 경남 함안군 문화회관에서 경남도 대회의 학술대회행사로 ‘지역농업과 한농연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 직전에 대통령농어업·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 황민영위원장의 특강이 있었다. 농정전반에 걸쳐 황위원장의 문제 진단과 대안과 소신을 밝히는 시간이었다. 그중에 너무나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말씀이 “협동조합개혁은 한농연이 원하는 만큼만 하겠다.”는 말씀이었다. 황위원장의 말씀은 지극히 옳은 말씀이었지만, 한편으로 엄습하는 실망감에 고개를 내저어야 했다.

농협개혁은 농특위원장 한 분이 원한다고 실현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농협은 정치력과 경제력과 조직력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이다. 농협에는 중앙회장을 정점으로 15,000명에 달하는 중앙회 직원이 있고, 60,000명에 가까운 회원조합

의 임직원이 있다. 이들은 자기들 조직에 불이익한 얘기가 나오면 그야말로 하나로 뭉쳐 똘똘하다. 이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뛰기 시작하면 그 조직력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기관도 없다. 더구나 이 거대 조직은 350만 농민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지위 향상이라는 드높은 목표와 농민 조합원이 그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정치적인 명분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종합금융기관과 20개가 넘는 자회사를 거느린 금융·산업복합체로서의 막강한 경제력도 가지고 있다. 이런 조직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농협개혁’을 외치는 정치인이나 학자나 관료를 압박하면 누구라도 손을 들 수밖에 없다.

농특위원장께서 농협의 막강한 힘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짐작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황위원장은 한농연이 강력하게 뒷받침해주지 않으

면 농협개혁은 이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협동조합 개혁은 한농연이 원하는 만큼만 하겠다.”는 말씀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왜 농협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한농연 회원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아무리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농촌복지를 강화한다고 해도, 농민은 시장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결코 잘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회원이 많지 않다. 그리고 세계의 농산물이 범람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설치하는 시장에서 우리 농민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똘똘 뭉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회원도 많지 않다. 농민이 잘살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과 시장에서의 성공이라는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회원도 많지 않다.

정부가 119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서도 필자는 기가 찼다. “농업투자자 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 그것이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생산성향상이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지도 않았고, 대책도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정부의 예산토론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투자를 왜 하는가? 투자를 해서 소득이 오르지 않으면 결국 그 투자는 빚으로 남는 게 아닌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투자대신 빚부터 먼저 갚아주라. 투자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만든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생산성이 올라도 소득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농민들이 시장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소비자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노력이 부족했고, 늘어난 생산량을 농민들끼리 서로 팔겠다고 지나친 경쟁을 했기 때문이다.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들끼리 똘똘 뭉쳐서 시장에 대응하고, 수급조절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농민이 잘 살 수 없는 게 지금의 시장구조가 아닌가. 농민들끼리 똘똘 뭉쳐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만드는 조직, 이게 농협이다. 그런데 우리의 농협은 지금 엉뚱한 일에 조직의 힘을 집중하고 있다. 열심히 돈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농민에게 ‘실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또 한번 외치고 싶다. “그래 농민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실익’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그 대신 농협이 판매사업을 제대로 안 해 농민들이 잃어버린 소득은 얼마나 되는가?”

농민들이 똘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회원이 얼마나 될까? 농협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회원이 얼마나 될까? 농협은 저렇게 막강한 조직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으로 똘쳐 있는데, 우리 회원들의 농협개혁의지는 얼마나 강한가? 크지도 않은 학술토론회를 다 채우지 못하는 우리 회원들의 관심, “협동조합개혁은 한농연이 원하는 만큼만 하겠다.”는 농특위원장님의 말씀(필자가 실망감을 느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이 하도 답답하여 “황위위원장님, 대통령님을 설득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라는 주문을 했다. 황위위원장님이 농협개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혹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까? ‘한농연이 원하는 만큼만’이라고.